

▶ 내신 기출 독서 신사고 ◀

I. 독서의 본질

- (1) 옛사람에게서 배우는 독서 (47문제) ----- 1쪽
- (2) 시장과 우물 (36문제) ----- 18쪽
- (2) 윤리적 소비 (14문제)----- 31쪽
- (2) 명품 집착, 우울한 한국인의 초상 (16문제) ----- 37쪽

II. 독서의 방법

- (1) 뇌 속의 전달자, 신경 전달 물질 (35문제)----- 43쪽
- (2) 풀 비린내에 대하여 (30문제)----- 59쪽
- (3) 감시와 역감시의 역사 (32문제)----- 71쪽
- (4) 생의 감각 (26문제)----- 87쪽
- (4) 엃박자 D (16문제)----- 95쪽
- (5) 공유 자원의 비극 (12문제)----- 104쪽

III. 독서의 분야

- (1) 선한 뜻을 이끄는 나의 '큰 몸' (38문제)----- 110쪽
- (1) 세잔과 입체파 (36문제)----- 125쪽
- (2)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다 (39문제)----- 143쪽
- (3) 달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37문제)----- 162쪽
- (3) 밀리미터파가 바꾸는 세상 (33문제)----- 177쪽
- (4) 예덕선생전 (32문제)----- 191쪽
- (5) 안녕, 코르데라! (23문제)----- 203쪽
- (6)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읽기 (27문제)----- 216쪽

IV. 독서의 태도

- (1) 나의 독서 편력기 (14문제)----- 231쪽

◆빠른 전체 정답 -----238쪽

◆해설 -----242쪽

교재 버전: 2021.02.21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내신 기출 독서 신사고 ◀

() 학기 () 고사 진도 체크

단원명	문제 풀이 계획일	문제 풀이 시작일	문제 풀이 완료일	틀린 문제 수	1차 복습 완료일	2차 복습 완료일

() 학기 () 고사 진도 체크

단원명	문제 풀이 계획일	문제 풀이 시작일	문제 풀이 완료일	틀린 문제 수	1차 복습 완료일	2차 복습 완료일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내신 기출 독서 신사고 ◀

내신 준비 가이드

Q. 내신 준비 언제부터 시작할까?

▶ 시험일 한 달 전부터는 시작해야 한다. (국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이라도) 한 달 전이면 대개 시험 범위의 윤곽이 잡히고 전체 시험 범위의 진도도 어느 정도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과의 균형도 고려한다면) 이때가 제일 좋다. 의욕이 앞서 너무 일찍 시작하는 것도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내신 준비는 적절한 타이밍에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Q. 내신 준비의 큰 틀은 무엇인가?

▶ 학교 쌤이 곧 출제자이니, 너의 국어 담당 선생님을 신(god)으로 여겨라! 신(국어 쌤)은 시험의 범위를 결정하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창조자이니라. 그렇기에 수업 시간을 시험 준비의 최대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라. 신의 말씀을 두뇌에 입력하고 손으로는 부지런히 받아 적어 놓아라.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필기가 잘된 교과서는 가장 완벽한 시험 대비 교재이다.

Q. 교재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가?

▶ '자습서': 교과서 필기 꼼꼼히 했다면 굳이 필요 없다. 오히려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내용까지 몽땅 포함되어 있어 내신에 당장 불필요한 공부를 하게 될 우려가 있다. 공부 착실하게 하고 필기 꼼꼼하게 한 교과서가 선생님의 포인트도 적절하게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대비용으로 자습서보다 100배 낫다. 그래도 기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자습서가 없어서 불안하고 참고 및 보충 정도만이라도 하고 싶다면 자습서 파일을 활용하라! **[홈피 자료실에서 자습서 파일 다운로드!]**

▶ '해당 출판사 전용 평문(평가문제집)': 내신 대비용 출판사 전용 평문은 다양하지 않고 유일하게 한 종만 출시된다. 문제 수도 많지 않을뿐더러 기본 문제가 대부분이지만 있다면 풀어볼 필요는 있다. 다만 자습서(자습서에도 문제가 약간 있음)가 있고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주는 교재나 문제가 있는 프린트가 어느 정도 있다면 굳이 살 필요가 없다. 출판사 평문을 표방한 타 문제집도 마찬가지다. **[홈피 자료실에서 기본 문제 파일 다운로드!]**

▶ '기출 문제집': 국어는 기출이 진리! 반드시 필요하다. 기출은 문제의 질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다. 질이 높던 낮던 난이도가 낮건 높건 실제로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고 시험에 임해야 한다. 모든 문제는 안 보더라도 기출은 꼭 봐야 한다. 물론 수업 잘 듣고 복습 철저히 하면 기출을 풀지 않더라도 100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다. 하지만 이런 이들은 극소수일 뿐이다. 문제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딱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두말 할 것 없이 당연히 기출이다.

★ 기출 활용법: 자신의 학교 홈페이지 혹은 교무실(혹은 도서관)에 학교 기출이 있다. 재학생들은 열람해서 복사도 대부분 가능하다. 우리 학교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꼭 살펴보자. 허나 출제 쌤들은 자신의 학교 기출 문제를 철저히 배제하기 때문에 똑같거나 거의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라는 기대는 버리자. 오히려 같은 출판사의 다른 학교 기출 문제가 거의 유사하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어 쌤들이 시중 문제집이나 자습서의 문제를 피하면서도 교육과정에 꼭 필요한 그리고 독창적인 문제를 내는 것에는 공통분모가 발견되는 것에 기인한다. 되도록이면 다수의 많은 학교의 기출을 접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학교 쌤들이 자주 출제하는 유형과 패턴을 자연스럽게 체화할 수 있다.

▶ '고난도 문제집': 내신 대비용 출판사에 목차에 맞는 고난도 문제는, 문제집으로도 인터넷 파일로도 존재하지 않으니 찾을 필요가 없다. 수요도 많지 않을뿐더러 질 좋은 고난도 문항 개발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제작하는 선생님도 출판사도 없다.

▶ '기타 기본 문제집': 문제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출판사 차례에 맞는 않는 범용 혹은 수능 관련 기본 문제를 사서 푸는 것은 내신 대비용으로 쓸데없는 짓이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1학년 문법 같은 경우나

▶ 내신 기출 독서 신사고 ◀

외부 지문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하다. 인터넷상에서 조금만 서치해도 많은 문제를 금방 찾을 수 있다.

Q. 선행 필요한가?

▶대부분이 불필요하다. 시험 범위가 나왔더라도 수업 진도 상황에 따라 범위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진도보다 미리 공부해서 낭패를 보는 일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국어(문학)라는 과목 특성상 한 작품(글)을 배우더라도 그것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지식과 수업 내용은 선생님이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오로지 수업 후 배운 내용에 대해서만 철저한 복습만이 필요할 뿐이다.

Q. 그럼 학원 선행은 불요하단 말인가?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수업만으론 부족할 수 있기에 학원 선행과 복습은 도움이 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점수를 올려주기 위한 업을 가진 학원 쌤들이 최선의 노력은 당연히 여러분의 점수 향상을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엔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Q. 공부의 우선순위와 중요도가 있는가?

▶당연히 있다. 학교 쌤의 수업 시간에 나온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이고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무리 학교 쌤의 수업이 불만족스럽다해도 출제자는 학교 쌤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쌤의 수업을 구워삶아 먹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쌤과 친해지는 것이 좋다. 교과서의 1순위 학습은 학습활동이나 본문의 날개 문제(물음)이다. 이는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쌤들이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도 별 부담과 무리가 없다. 교과서 문제는 하나도 틀림없이 서술형으로도 외워서 풀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 2순위는 필기 내용의 정리와 암기이다. 계속 반복해서 백지에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을 차차 늘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 (홈피 자료실에서 관련 파일 다운로드!)

Q.수업 시간에 안 배운 것이 출제될 수 있나?

▶안 배운 내용은 절대 출제 될 수 없다. 다만 수업시간에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제공된 프린트에 심화된 내용 혹은 플러스된 내용이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출제될 수 있다. 허나 그것들이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슬쩍 보는 정도로만 충분하다.

Q.교과서 본문에 안 나온 외부 예시나 지문 출제될 수 있나?

▶교과쌤에게 위와 같이 질문했을 때 확실하게 대답을 주시면 해결될 문제이지만 대부분이 쌤이 애매하게 말하거나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공부 많이 시키고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외부 내용을 일단 두 종류로 구분해야 한다. 교과서 본 지문(작품)과 관련하여 나온 세컨 지문(작품)은 수업 시간에 다루었으면 물론이건 다루지 않더라도 봐두어야 한다. 그 다음에 교과서 내부에 작품(지문)명 정도만 언급된 것들이 외부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고1 문법 파트는 당연히 교과서에 없는 예시가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해야하며 문학 작품의 일부분이 외부에서 나오나 그것들을 위해 다른 교재를 사거나 할 필요 까진 없다. 외부 지문은 내부 지문에 비해 그 수준이 많이 낮기 때문이다. 외부 지문은 표현 기교나 분위기 정서 태도에 관한 현대시나 고전 시가의 예 위주로 살펴보면 된다.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내신 기출 독서 신사고 ◀

망망의 숲 한켠이 보인다.

우리는 모두 신과 같은 창조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 교재를 공부할 때마다
이번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를 마음에 새겨라
그리하면 그 점수가 우주에 저장되리라

원하는 점수를 받은 미래의 감정을 미리 풀어내어라
그리하면 그 점수를 창조할 수 있는 우주의 힘을 끌어당긴다.

기도는 무엇을 해달라고 갈구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갈구하는 것은 무엇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품는 것이고
그 생각은 무엇이 부족한 상태를 창조할 뿐이다.

이미 성취된 목표를 상상하며 그것을 마음에 풀어보자
그리고 정성과 열정을 쏟아낸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머리 예언서>

나는 이번 () 고사 () 과목에서 () 점 득은 () 공감을 이루었다.
나는 이번 () 고사 () 과목에서 () 점 득은 () 공감을 이루었다.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1-(1) 옛사람에게서 배우는 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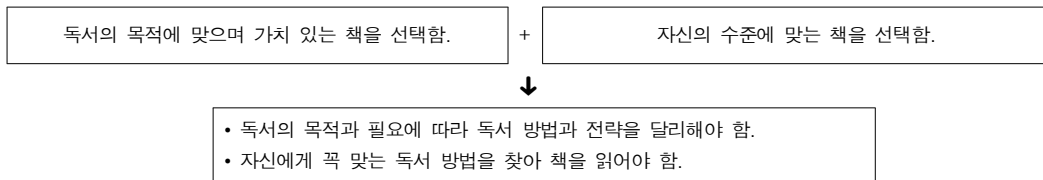
01 독서의 목적과 가치 및 방법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부에 도움을 받기 위해 • 교양, 쌓기 위해 •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 • 여가 생활을 위해 • 타인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보지 못한 곳, 겪어 보지 못한 일, 갈 수 없는 옛날도 책을 통하여 자유롭게 오갈 수 있음. • 시공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줌. • 상대와의 대화에서 화제를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 줌.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의 목적이 다양하듯 독서의 방법도 일정할 수 없음. • 정독, 다독 등의 방법이 있지만 정해진 답은 없음. • 모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고, 수없이 되풀이해 읽어서 한 부분만 손때가 묻은 책도 있어야 함.

02 옛사람들의 독서법

홍석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에 따라 읽는 책을 달리하여 한꺼번에 여러 종류의 책을 함께 읽음. • 본격적인 탐구가 필요한 내용은 관련 주제의 책을 모아 두고 집중적으로 읽음. • 바쁜 중에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폭넓게 읽음.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서법, 즉 독서 중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이 사라지기 전에 기록함. • 독서를 하다가 떠오른 의문, 조사해 찾은 내용, 자신의 생각을 기록해 두었다가 책으로 펴냄.
김득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훌륭한 문장을 가려 뽑아 되풀이해 읽음. • 좋은 책을 반복해 읽음.

03 올바른 독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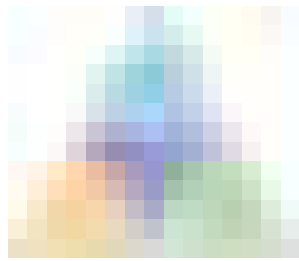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좋은 글을 읽는 경험은 감동과 즐거움의 형태로 때로는 ㉠성찰의 경험으로 독자의 내면에 켜켜이 쌓여 ㉡독자의 내면을 바꾸고 성장시킨다. 좋은 글을 선택하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첫 단추를 꿰는 일과도 같다. 이때 어떤 글이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고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인지 판단하는 일은 독자에게 달려 있다. 독자가 ㉣좋은 글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가지고, ㉤자신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글을 찾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독서의 출발이라 할 수 있다.

(나)

독서는 읽을 글을 선택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좋은 글은 독자에게 지식과 감동, 즐거움을 주고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여 독자의 지적·정신적 성장을 이끌어 준다. 읽을 글을 선택할 때 다음 세 가지 요건을 고려하면, 독서 목적과 글의 가치에 맞는 좋은 글을 선택할 수 있다.



청란여자고등학교 (대전)

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독서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고 있다.
- ② 좋은 글을 읽는 경험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③ 글을 읽을 때는 옛사람들의 독서법을 전적으로 따를 것을 주장한다.
- ④ 글을 역순행적으로 구성하여 글쓴이의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글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독자의 입장보다 작가의 입장부터 고려해야 한다.

청란여자고등학교 (대전)

2. 밑줄 친 ㉠~㉤ 중 진정한 독서를 위한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청란여자고등학교 (대전)

3. (나)의 그림 중 '맥락'에 해당하는 좋은 글의 선택 기준을 고르면?

- ① 글의 내용이 이치에 맞는가?
- ② 독자의 배경지식과 읽기 능력에 맞는가?
- ③ 글과 필자에 대한 독서 공동체의 평가가 긍정적인가?
- ④ 글이나 책의 편집이 읽기 쉽고 편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⑤ 학업, 교양, 문제 해결, 여가 타인과의 관계 유지 등 독자의 읽기 목적에 맞는가?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책은 우리 주변에 쌓여 있다. 우리는 다양한 목적으로 책을 읽는다. 공부에 도움을 받으려고 읽고, 교양을 쌓기 위해 읽는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책에서 얻기도 하고, 여가 생활을 위해 책을 펼치기도 한다. ㉠가 보지 못한 곳, 겪어 보지 못한 일, 갈 수 없는 옛날도 책을 통하면 자유롭게 오갈 수가 있다. 책은 시공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고, 상대와의 대화에서 화제를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 준다.

[나] 그렇다면 책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 목적에 맞으며 가치 있는 책을 선택하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 읽어야 한다. ㉡독서의 목적이 다양하듯 독서의 방법도 일정할 수 없다. 흔히 정독(精讀)과 다독(多讀)을 두고 바른 독서의 방법을 묻곤 한다. 여기에 정해진 답은 없다. 정독할 책은 정독하고, 다독할 책은 다독하면 된다. 옛사람들은 정독을 위해 같은 책을 수십 번 수백 번 다독하는 방법을 택했다. 새겨 읽어야 할 책은 새겨서 읽고,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는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면 된다. 일생을 함께해야 할 지혜를 소설책 읽듯이 흘러 읽을 수 없고, 깊은 사색이 필요한 주제를 만화책 보듯 해서도 안 된다. ㉢소처럼 여러 차례 되새김질해서 하나하나 음미하며 읽어야 할 때가 있고, 고래가 큰 입을 벌려 물고기와 새우를 한꺼번에 삼켜 버리듯 해야 할 때도 있다. 모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고, 수없이 되풀이해 읽어서 한 부분만 손때가 묻은 책도 있어야 한다.

[다] 이익(李瀾, 1681~1763)은 한 손에 붓을 들고 책을 읽다가 펄쩍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이 사라지기 전에 열심히 기록하는 방법을 썼다. 이를 그는 질서법(疾書法)이라고 불렀다. 질서는 재빨리 베껴 쓴다는 말이다. ㉣기록은 그때그때 붙들어 두지 않으면 금세 달아나 버린다. 그는 사서삼경을 읽다가 떠오른 의문과 조사해 찾은 내용,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기록해 두었다가 『시경질서』, 『논어질서』 같은 책으로 펴냈다. 작은 기록이 쌓여 큰 학문을 이룬 것이다.

[라] ㉤병증에 맞는 약은 약국에 다 있다. 하지만 아무 약이나 먹어서는 병이 낫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된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약사가 그것을 조제해 준다. 잘 안 낫던 병이 그 약을 먹으면 금세 낫는다. 책도 닳치는 대로 읽어서는 오히려 안 읽느니만 못할 수도 있다. 독서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결에서 조연을 해 주는 조력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양분을 고르게 섭취해야 건강해지듯이, 생각에도 균형이 필요하다. ㉥독서는 생각의 균형을 잡아 주는 저울이다.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금씩 바로잡아 내게 꼭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옛사람들이나 선배들의 독서법에 관한 책을 찾아 읽어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경해여자고등학교 (경남)

4.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책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하지만 공간은 뛰어넘을 수 없다.
- ② 옛사람들은 다독을 위해 같은 책을 수십 번 수백 번 정독하는 방법을 택했다.
- ③ 독서 방법이 일정할 수 없는 다양한 이유는 다양한 독서 목적 때문이다.
- ④ 사회·문화적 이념과 관련지어 옛사람들의 독서법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독서 목적을 비유적 표현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경해여자고등학교 (경남)

5.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독서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
- ② ㉡: 다양한 방면의 글을 두루 읽음을 뜻한다.
- ③ ㉢: 이익이 질서법을 쓰는 이유이다.
- ④ ㉣: 독서의 목적, 독자의 수준 등을 비유하고 있다.
- ⑤ ㉤: 독서의 의의라고 말할 수 있다.

경해여자고등학교 (경남)

6. <보기>에서 좋은 글의 판단 기준 2개를 찾아 서술하시오.

<보기>

좋은 글을 읽는 경험은 감동과 즐거움의 형태로 때로는 성장의 경험으로 독자의 내면에 커져이 쌓여 독자의 내면을 바꾸고 성장시킨다. 좋은 글을 선택하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첫 단추를 꿰는 일과도 같다. 이때 어떤 글이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고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인지 판단하는 일은 독자에게 달려 있다. 독자가 좋은 글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가지고, 자신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글을 찾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독서의 출발이라 할 수 있다.

경해여자고등학교 (경남)

7. 주제 통합적 읽기의 절차가 바르게 된 것은?

- ① 관심 있는 화제, 주제, 쟁점 확인 - 다양한 글과 자료의 선정 - 선정한 글과 자료의 관점 정리 - 관점의 비교·대조와 평가 - 자신의 관점 재구성
- ② 관심 있는 화제, 주제, 쟁점 확인 - 자신의 관점 재구성 - 관점의 비교·대조와 평가 - 다양한 글과 자료의 선정 - 선정한 글과 자료의 관점 정리
- ③ 다양한 글과 자료의 선정 - 선정한 글과 자료의 관점 정리 - 자신의 관점 재구성 - 관점의 비교·대조와 평가 - 관심 있는 화제, 주제, 쟁점 확인
- ④ 관점의 비교·대조와 평가 - 관심 있는 화제, 주제, 쟁점 확인 - 선정한 글과 자료의 관점 정리 - 자신의 관점 재구성 - 다양한 글과 자료의 선정
- ⑤ 관점의 비교·대조와 평가 - 자신의 관점 재구성 - 다양한 글과 자료의 선정 - 관심 있는 화제, 주제, 쟁점 확인 - 선정한 글과 자료의 관점 정리

청란여자고등학교 (대전)

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독서의 방법은 전문가의 추천을 따라야 한다.
- ② 독서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독서의 방법도 달라진다.
- ③ 여러 세대를 통해 검증된 하나의 이상적인 독서법이 존재한다.
- ④ 좋은 글은 독서의 목적이나 방법과 관련 없이 어떤 독자에게나 유용하다.
- ⑤ 학문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독서야말로 의미 있는 독서임을 강조한다.

청란여자고등학교 (대전)

9.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김득신은 이익의 독서법을 그대로 따랐다.
- ② 이익은 책을 읽다가 떠오르는 생각을 빠르게 기록하였다.
- ③ 김득신은 책을 읽다가 떠오르는 의문이 생기면 이에 대해 바로 조사하였다.
- ④ 이익은 본격적으로 탐구해야 할 내용이 생기면 관련 주제의 책을 전부 모아서 읽었다.
- ⑤ 김득신의 독서 방법은 표면적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지만 그 이면에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다.

총력만능국어
www.chongmangug.co.kr
 기본 문제
 오류 체크
 자습서 파일
 시험 대비 자료

삼정고등학교 (부산)

13.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독서법의 양상을 소개하고 있다.
- ② 올바른 독서법에 대해 필자의 관점에 따라 추천하고 있다.
- ③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옛사람들의 독서법을 소개하고 있다.
- ④ 독서법에 대한 상반되는 관점을 대조하며 각각의 장단점을 소개하고 있다.
- ⑤ 독서와 관련된 필자의 일화를 소개하면 독서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삼정고등학교 (부산)

14. 뒷글에 언급된 옛사람들이 독서법에 대해 할 수 있는 말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홍석주: 바쁜 상황 속에서도 잠깐의 시간을 내어 조금이라도 책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 ② 홍석주: 어떤 주제를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으면 관련 주제의 책을 여러 권 읽어야 합니다.
- ③ 이익: 책을 읽을 때는 떠오르는 생각을 그때마다 메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④ 김득신: 목적에 따라 책을 달리하여 한꺼번에 여러 종류의 책을 함께 읽는 것이 좋습니다.
- ⑤ 김득신: 다양한 책을 많이 찾아 읽는 것도 좋지만, 좋은 책을 반복해 읽는 것도 매우 유용합니다.

삼정고등학교 (부산)

15. 필자가 제시한 올바른 독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독서 목적에 따라 우선 좋은 글을 선택해야 한다.
- ② 자신에게 맞는 독서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 ③ 독서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독서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좋다.
- ④ 가치 있는 글을 선택하되 자신의 수준보다 높은 글을 선택한다.
- ⑤ 옛사람들의 독서법에 관한 책을 찾아 읽고 자신의 독서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정명고등학교 (경기)

16.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필자가 생각하는 올바른 독서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옛사람의 독서법을 소개하고 있다.
- ③ 비유를 통해 자신의 수준에 맞는 글을 선택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다양한 독서의 방법을 소개하면서 조력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다양한 독서의 목적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독서의 방법과 태도가 달라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정명고등학교 (경기)

17. ㉠~㉣의 독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목적에 따라 읽는 책을 달리하여 한꺼번에 여러 종류의 책을 함께 읽는다.
- ② ㉡: 본격적인 탐구가 필요한 내용은 관련 주제의 책을 모아 두고 집중적으로 읽는다.
- ③ ㉢: 많은 책을 섭렵하고 좋은 책은 반복해서 읽는다.
- ④ ㉣: 독서 중에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이 사라지기 전에 기록한다.
- ⑤ ㉣: 훌륭한 문장을 가려 뽑아 되풀이해 읽는다.

정명고등학교 (경기)

18. 문맥적으로 볼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좋은 글을 읽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바꾸고 성장시켜야 한다.
- ② 효율적인 독서를 위해서는 다양한 글과 매체 자료를 찾아 읽어야 한다.
- ③ 독서를 통해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④ 좋은 글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가지고 적합한 글을 찾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 ⑤ 목적에 따라 가치 있는 글을 선택하되, 자신의 수준에 맞는 글을 선택해야 한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누구나 살아오는 동안 마음 깊이 간직한 책이 있게 마련이다. 어린 시절 종이가 너털너털해지도록 읽었던 동화부터, 길을 몰라 방황하던 청소년 시기에 목직한 충격으로 제자리를 찾게 해 준 책이 있다. 학문의 길에서 만나 인생의 스승이 된 고전도 있다. 늘 힘이 되고 일깨움을 주는 책 몇 권이 함께할 수 있다면 그의 독서는 쓸쓸하지 않을 것 같다.

책은 우리 주변에 쌓여 있다. 우리는 다양한 목적으로 책을 읽는다. 공부에 도움을 받으려고 읽고, 교양을 쌓기 위해 읽는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책에서 얻기도 하고, 여가 생활을 위해 책을 펼치기도 한다. 가 보지 못한 곳, 겪어 보지 못한 일, 갈 수 없는 옛날도 책을 통하면 자유롭게 오갈 수가 있다. 책은 시공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고, 상대와의 대화에서 화제를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 준다.

그렇다면 책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 목적에 맞으며 가치 있는 책을 선택하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 읽어야 한다. 독서의 목적이 다양하듯 독서의 방법도 일정할 수 없다. 흔히 정독(精讀)과 다독(多讀)을 두고 바른 독서의 방법을 묻곤 한다. 여기에 정해진 답은 없다. 정독할 책은 정독하고, 다독할 책은 다독하면 된다. 옛사람들은 정독을 위해 같은 책을 수십 번 수백 번 다독하는 방법을 택했다. 새겨 읽어야 할 책은 새겨서 읽고,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는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면 된다. 일생을 함께해야 할 지혜를 소설책 읽듯이 흘려 읽을 수 없고, 깊은 사색이 필요한 주제를 만화책 보듯 해서도 안 된다. 소처럼 여러 차례 되새김질해서 하나하나 음미하며 읽어야 할 때가 있고, 고래가 큰 입을 벌려 물고기와 새우를 한꺼번에 삼켜 버리듯 해야 할 때도 있다. 모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고, 수없이 되풀이해 읽어서 한 부분만 손때가 묻은 책도 있어야 한다.

옛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맞는 독서법을 찾아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읽었다. 몇 가지 예를 소개한다. 홍석주(洪奭周, 1774~1842)는 한꺼번에 여러 종류의 책을 함께 읽는 방법을 썼다. 그는 바쁜 벼슬살이의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아침에 머리 빗을 때 읽는 책과 안채의 베개 밑에 두고 읽는 책이 달랐다. 사랑채에 있을 때 곁에 두고 읽는 책은 또 따로 있었다. 목적에 따라 읽는 책이 달랐다는 것인데,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버스나 지하철, 기차에서 이동하는 시간에 읽는 책과, 집과 사무실에서 여가에 읽는 책이 다 달랐던 셈이다. 홍석주는 본격적인 탐구가 필요한 내용은 관련 주제의 책을 모아 두고 집중적으로 읽었다. 형편에 따라 쉬지 않고 부지런히 야근야근 폭넓게 읽었다. 홍석주는 “한 권의 책을 다 읽을 만큼 길게 한가한 때를 기다린 뒤에야 책을 편다면 평생 가도 책을 읽을 만한 날은 없다. 비록 아주 바쁜 중에도 한 글자를 읽을 만한 틈이 생기면 한 글자라도 읽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이익(李瀼, 1681~1763)은 한 손에 붓을 들고 책을 읽다가 퍼뜩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이 사라지기 전에 열심히 기록하는 방법을 썼다. 이를 그는 질서법(疾書法)이라고 불렀다. 질서는 재빨리 베껴 쓴다는 말이다. 기억은 그때그때 붙들어 두지

않으면 금세 달아나 버린다. 그는 사서삼경을 읽다가 떠오른 의문과 조사해 찾은 내용,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기록해 두었다가 『시경질서』, 『논어질서』 같은 책으로 펴냈다. 작은 기록이 쌓여 큰 학문을 이룬 것이다.

그리고 김득신(金得臣, 1604~1684)은 훌륭한 문장을 가려 뽑아 책상 위에 놓아 두고 몇 만 번씩 숫자를 헤아려 가며 되풀이해 읽었다. 제일 좋아했던 『백이열전』은 1억 번도 넘게 읽은 것으로 유명하다. 많은 책을 섭렵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좋은 책을 반복해 읽는 것도 대단히 유용한 독서 방법 중 하나이다.

이상적인 독서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듯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방법과 태도가 달라야 한다. 우리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책을 읽는다. 학업과 교양, 문제 해결과 여가 활용,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유지 등 독서의 목적은 다양하다. 그러므로 독서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알맞은 책을 선택해 효율적으로 읽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목적과 필요에 따라 책을 선택할 때에는 우선 좋은 글을 선택해야 하지만, 글이 아무리 훌륭해도 내 수준에 맞지 않으면 소화 불량에 걸린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해도 내게는 맞지 않는 글도 있다. 따라서 목적에 따라 가치 있는 글을 선택하되, 자신의 수준에 맞는 글을 선택해야 한다.

병증에 맞는 약은 약국에 다 있다. 하지만 ㉠아무 약이나 먹어서는 병이 낫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된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약사가 그것을 조제해 준다. 잘 안 낫던 병이 그 약을 먹으면 금세 낫는다. 책도 닥치는 대로 읽어서는 오히려 안 읽느니만 못할 수도 있다. 독서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결에서 조언을 해 주는 조력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양분을 고르게 섭취해야 건강해지듯이, 생각에도 균형이 필요하다. 독서는 생각의 균형을 잡아 주는 저울이다.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금씩 바로잡아 내게 꼭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옛사람들이나 선배들의 독서법에 관한 책을 찾아 읽어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정민, ‘옛사람에게서 배우는 독서’

금정여자고등학교 (부산)

19.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문답적인 전개를 사용하여, 이상적인 독서법이 따로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옛사람과 현대인을 비교하여, 시대에 따라 독서법이 달라짐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옛사람들을 예로 들어, 독서가 정신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비유를 사용하여,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읽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독서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여, 양서를 읽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해설>>

1-(1) 옛사람에게서 배우는 독서

1.②

▶<좋은 글을 읽는 경험은~독자의 내면을 바꾸고 성장시킨다>를 통해 알 수 있음.

4.③

▶<목적에 맞으며 가치 있는 책을 선택하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 읽어야 한다>를 통해 알 수 있음.

5.②

▶㉠: 뜻을 새기고 글의 내용을 곱씹어 가며 자세히 읽음.

9.②

▶<이익(李瀾, 1681~1763)은 한 손에 붓을 들고 책을 읽다가 퍼뜩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이 사라지기 전에 열심히 기록하는 방법을 썼다>를 통해 알 수 있음.

10.⑤

▶옛사람들(홍석주, 이익, 김득신)의 독서법을 예로 들어 자신에게 적합한 독서법을 찾아 익히는 과정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11.③

▶㉡: 시간 나는 대로 책을 읽는 것을 말함.

13.③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옛사람들(홍석주, 이익, 김득신 등)의 독서법을 소개하고 있다.

14.④

▶목적에 따라 책을 달리하여 한꺼번에 여러 종류의 책을 함께 읽는 것은 홍석주와 관련됨.

15.④

▶자신의 수준에 맞는 글을 선택해야함.

16.①

▶필자가 아닌, 옛사람의 독서법을 제시함.

17.③

▶좋은 책은 반복해서 읽는 것은 ㉢와 관련됨.

19.④

▶비유(개성, 소화불량 등)를 사용하여,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읽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20.②

▶책을 두고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읽는 것은 홍석주와 관련됨.

24.③

▶모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는 없음.

25.④

▶지혜를 얻기 위해 도움이 되는 독서법을 직접 제시한 것은 아님.

26.④

▶<독서의 목적이 다양하듯 독서의 방법도 일정할 수 없다>를 통해 알 수 있음.

27.④

▶ㄴ: 옛사람들의 독서법을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움, ㄹ: 고래, 소 등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익숙한 대상에 빗댄.

28.③

▶㉤은 관련된 주제의 책을 모아 읽는 것으로 두루 글을 읽는 ㉥와 같음.

29.①

▶대학생 추천 도서 목록은 고등학생의 수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31.④

▶'양분의 고른 섭취'는 '옛사람, 선배들'과 관련됨.

35.③

▶좋은 글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와 관련된 내용은 없음.

36.②

▶같은 책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읽는 것으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정독을 할 수 있기 때문임.

37.①

▶독서 목적에 따라 독서 방법이 다양할수록 독서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임.

38.①

▶(가)에서 일반적인 통념 제시는 없음.

40.②

▶<독서가 주는 행복은 글을 읽음으로써 독자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를 통해 알 수 있음.

41.④

▶<결에서 조언을 해 주는 조력자의 역할도 중요하다.~옛사람들이나 선배들의 독서법에 관한 책을 찾아 읽어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를 통해 알 수 있음.

43.③

▶고등학교 독서 동아리 학생들인데 대학생 추천 도서 목록을 참고 했으므로 독자의 지적 수준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것임.

44.⑤

<<해설>>

▶미 위주의 책의 장점을 언급한 것임.

45.⑤

▶<훌륭한 문장을 가려 뽑아 책상 위에 놓아 두고 몇 만 번씩 숫자를 헤아려 가며 되풀이해 읽었다>를 통해 알 수 있음.

46.④

▶다양한 독서법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독서 방법을 찾아 익히는 과정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47.④

▶선정한 자료 중 궁금증과 관련성이 높은 글부터 읽기 시작한다.

1-(2) 시정과 우물

1.④

▶<연경의 아홉 개 성문 안팎으로 뻗은 수십 리 거리에는 관아와 아주 작은 골목을 빼놓고는 대체로 길을 끼고 양옆으로 상점이 늘어서 있다. 시골도 마찬가지로~>를 통해 알 수 있음.

2.⑤

▶우물에서 물을 퍼내면 물이 가득 차지만 길어 내지 않으면 물이 말라 버리는 것처럼 재물도 이와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쓸모가 없어진다. 그래서 재물을 사용할 방법과 재물을 만들어 낼 방법을 모른다면 재물을 사용할 수 없으니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같음.

7.③

▶'지금 종각(鐘閣)이 있는 종로 네거리는 연달아 있는 시장 점포의 거리가 1리가 채 안 된다. 중국에서는 내가 거쳐 간 시골 마을의 점포가 대개 몇 리에 걸쳐 있었다. 또 거기에 운송되는 물건의 번성함과 품목의 다양함이 모두 온 나라의 물건으로도 미치지 못한다'를 통해 알 수 있음.

8.②

▶[나]에 상업을 천시하는 관점이 드러남.

12.②

▶⑥고갈: 어떤 일의 바탕이 되는 돈이나 물자, 소재, 인력 따위가 다하여 없어짐.

13.④

▶(나)는 미시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14.⑤

▶과시 소비: 자아 존중감이 낮을수록 과시를 통해 자아 존중감을 고양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16.②

▶(가)의 필자는 명품 브랜드 제품이 갖는 희소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임.

17.③

▶연쇄법(~우물이다. 우물에서~)을 활용하여 조선의 문제점(재물을 사용하지 않음)을 비판하고 있다.

19.④

▶ㄴ. (나)는 구체적인 예(자전거, 채식, 지역 먹거리 장려 정책)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ㄷ. (다)는 문답 형식(~더 강할까? 쉽게 집착할 수~)으로 필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ㄹ. (가)와 (다)는 문제 상황을 인과적(소비와 통에 대한 인식 부재로 경제 구조 취약함 / 자아가 약해서 유행에 선동됨)으로 분석하고 있다.

20.①

▶(가): 나라가 가난해지는 이유는 시장과 유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임.

21.②

▶(가)의 필자는 물적재의 생산과 소비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22.③

▶(가)와 (나)는 문제 상황을 인과적(소비와 통에 대한 인식 부재로 경제 구조 취약함 / 자아가 약해서 유행에 선동됨)으로 분석하고 있다.

23.④

▶품질 만족으로 명품을 사는 것은 필자의 생각과 다르기에 ④와 같은 반응은 적절함.

25.③

▶<동조 행위는 소비 현장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유행하는 제품을 사고 나면 최소한 남들보다 뒤떨어지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를 통해 알 수 있음.

27.②

▶유추는 없음.

28.⑤

▶공정 무역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의롭지 못하다고 한 것은 아님.

29.②

▶(가)의 필자는 명품 브랜드 제품이 갖는 희소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30.②

▶골목 입구나 문 앞에는 제각기 아름답게 조각한 돌이나 나무로 만든 기둥을 세워 놓았다.

31.①

▶문제 상황을 비유적(재물-우물)으로 제시하고 있다.

32.⑤